

취임사

친애하는 제주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5대 제주발전연구원장에 취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먼저 제주발전의 미래 비전과 각종 정책을 개발하여 제주도를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전직 원장님들과 이사님들, 전·현직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도민정책연구기관으로서 제주발전연구원의 위상에 대해 의문점을 갖거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제주도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올해 제주발전연구원은 개원한지 10년을 맞이 했습니다. 지난 10년이 연구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를 향한 디딤돌을 놓았다면, 앞으로의 10년은 도민들에게 지역발전의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제주의 미래 청사진을 보다 확실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발굴하는 연구원, 작지만 일 잘하는 활력넘치는 연구원,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연구원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연구원의 역점사업이나 발전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주에 대한 전국 네트워크인 ‘제주미래포럼’을 창설하고자 합니다. 제주미래포럼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전국 각 분야별 전문가와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전국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제주의 미래 비전과 현안과제에 대한

정기적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정적 재원확보 및 자금운영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안정성과 수익성에 기초한 기금운용(현재 기금 50억원)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민간부문(재일동포)에의 기금출연 등도 적극적인 협력을 구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와의 성과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 예산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연구인력(현재 정규직 박사인력 9인)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연구원의 규모와 조직은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15인 수준으로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제주의 미래 비전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고자 합니다. 현재의 연구자문위원제를 활성화하여 매월 1회씩 분야별로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안해결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년간의 정책자문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연구보고서로 발간할 것입니다.

넷째, 연구원에서 발간되는 정책과제, JDI OPINION, 제주발전연구, 제주발전포럼 등에서 제시된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도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연구원 가족 모두에게 즐겁고 보람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함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간다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16일

제주발전연구원 원장 허향진